

WORLD

글로벌 리빙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의 담론  
집에 대한 생각

몰테니앤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센트 반 두이센  
균형 있게 잘 연결된 나만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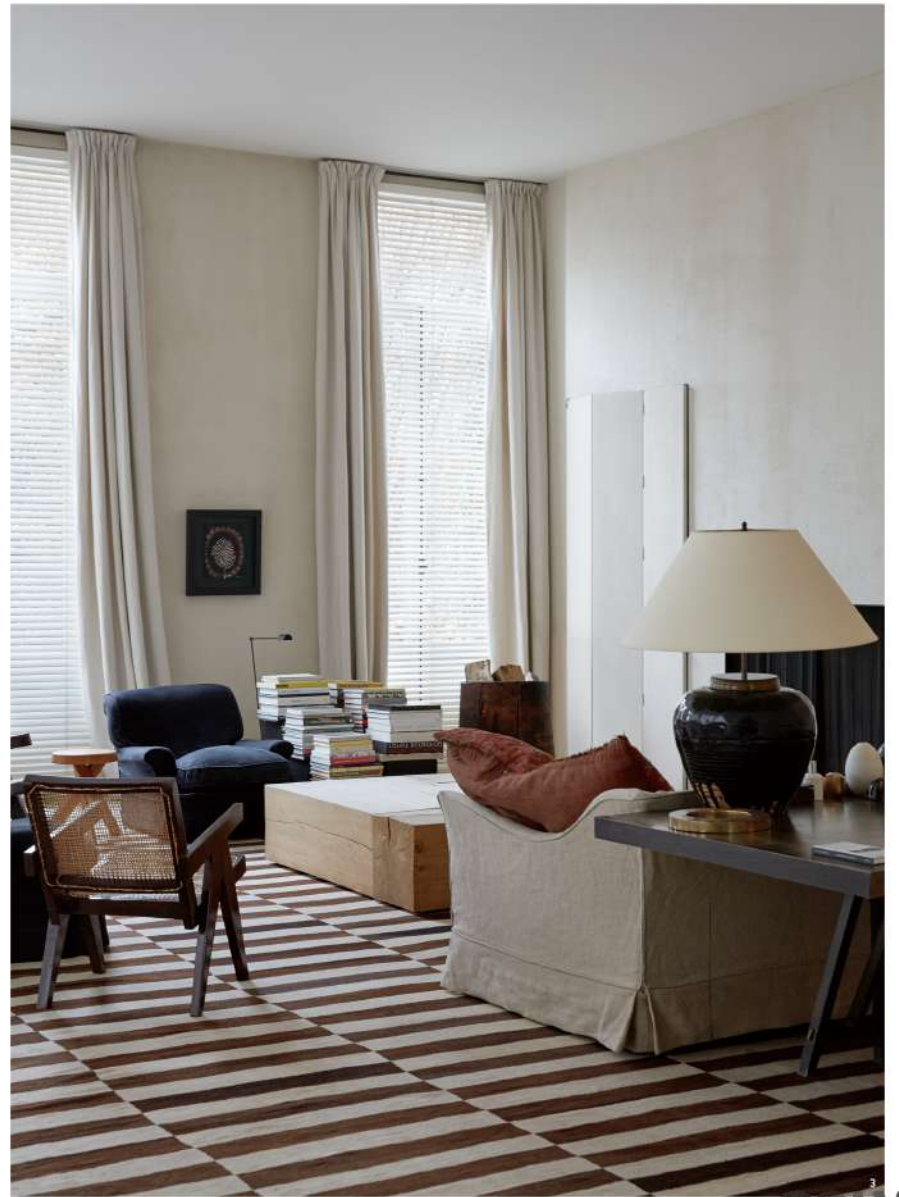
©Thomas Seear-Bald

30년 이상 엔트워프를 기반으로 창작 세계를 펼쳐온 빈센트 반 두이센(Vincent Van Duysen)은 건축은 물론이고 몰테니앤씨(Molteni&C)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건재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거운 어깨만 큼이나 바쁜 삶을 사는 그에게 진정한 명상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에디터 유승주 포토그래퍼 카시아 기트코프스카(Kasia Gatkowska)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인을 책임지는 빈센트 반 두이센과  
엘스 반 후레비크는 집을 채우는 모든 요소 간의 '밸런스'  
를 강조한다. 이는 결국 삶에서의 균형을 찾으라는 메시  
지이기도 하다.

1 평소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를 활용해  
낸디한 스타일링을 즐기는 빈센트 반  
두이센과 그를 똑같은 무루, 가스통, 파  
블로 2 거실이 장식처럼 서 있는 토머  
스 하우스이고(Thomas Houseago)  
의 아델(Adel), "올베미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인의 추상적  
얼굴일 수도 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종의 보호물처럼 느낀다"라고 소개했  
다. 3 소스로 디퓌기는 아니하지만, 그  
의 주변엔 늘 책이 쌓여있다. 또 피에르  
칸노레의 가구를 꾸준히 수집해왔다고.  
토속적인 재료로 소박하지만 견고한 밧  
을 낸 이지(Easy) 알체어를 무심한 듯  
멋스럽게 놓았다.





1 넓은 기성, 높은 천장과, 장원으로 향하는 대형 창을 배경으로 까다롭게 고른 가구와 아트 피스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본질의 순수성을 추구하며 제한한 색상과 소재는 이 공간의 라이토모티프(Litmotif)이다. 2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미세으로 칩했고 그렇게 공간을 정제해나갔다. 열은 본의 포플러 나무 바닥과 흰 대리석 욕조, 여기에 은은한 자연 채광이 더해지며 안정감이 느껴진다. 3 의도적으로 어둡게 채색한 공간에 현대 사진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의 작품을 걸어 차분하고 고요하되 극적인 분위기를 유도했다. 4 촉감 좋은 러닝과 우드, 그리고 오래되어 익숙해진 것들로 채운 짐실. 그가 사랑하는 피에르 잔느레의 가구, 이반 홀러웨이(Evan Hollaway)의 작품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는 경험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1 이 오래된 타운하우스는 과거 공방인의 오피스였다. 새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다락방은 노출된 목구조가 주는 거칠고 투박한 멋이 있다. 빈센트가 좋아하는 가구 컬렉션을 마치 전시하듯 놓아 두었다. 2 베일스런게 고요한 중정 안, 균일하게 배분한 벽역 프레임의 중층양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건축적 요소와 사물 간의 시각적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 그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벼왔다. 최종적으로 엔트워프에 동지들 온 이유는? 거주지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본 요소는 무엇인가?**  
 별기에는 연극과 무용을 포함한 각종 공연, 패션과 건축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엄청난 창의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출장을 포함해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결국 마음이 진정으로 치분해지는 내 집을 향한 귀소본능은 더 세세하게 마련인데, 엔트워프는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이상적이다. 엔트워프는 한마디로 '국제적인 작은 도시'다. 다른 문화, 전통과 관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내 창작 활동에 필수적이다. 내 디자인을 꾸준히 매력적이고 혁신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중시 여겼다.

**다이나믹한 도시와는 달리 당신의 집은 꽤 차분하다. 취향, 생활 방식, 건축과 디자인 철학이 집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집은 내 성격, 내가 누구인지, 심미성에 대한 나의 기준과 포용력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포용이란 예술이든, 책이든, 장식 조각이든 간에 어떠한 대상과 매질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와 제품 디자인이 마치 총합예술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나의 세계를 완성한다. 나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예술, 건축, 디자인 및 장식에 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편이나 단락 위주로 읽는 편이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를 습득하고 영감을 얻는다. 창작 활동을 하며 늘 중요하게 생각해온 '균형을 집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물건과 인테리어 장식용 물건 사이에는 항상 균형이 있다. 또 야외 공간과 연결된 커다란 방, 그리고 TV 룸과 같은 작고 보호받는 느낌의 소위 코펜 방들 사이에도 밸런스가 존재한다. 프라이버시의 균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간의 균형을 맞춘 공간,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가?**  
 나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편이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샤워를 하고, 면도와 꼼꼼한 피부 관리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 20분간의 초월적인 명상은 하루 중 제일 소중한 일과다. 사실 명상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속도에 따라가듯 맞춰 살면서 어느덧 한계점을 느끼면서부터다. 그렇게 유능한 스승을 만나 내만의 고유한 세계로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비로소 삶의 균형을 찾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창의성과 직관력을 키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명중의 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20분의 명상은 6시간의 수면만큼이나 중요하다. 또 아침을 챙겨 먹는데, 냉장고에는 늘 블루베리와 신선한 채소, 요구르트가 있다. 좋은 와인도 즐긴다. 식사 후엔 이매임을 읽고, 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회의들 시작한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가?**  
 20년 이상 반려견들과 함께해온 만큼 그들은 내 삶의 일부이며 가족과 다름없다. 닉스콘트는 매우 똑똑하고 배려심이 많고 사랑스럽다. 집안 전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현재 쿠루와 가스통은 무지개다리를 건넌고, 파블로만 남았다. 내가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해 케어를 하고 있다.

**평생 공간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소위 직업명이나 특유의 습관이 있는지?**  
 나는 매우 꼼꼼하다. 내 공간이 철저하고 깔끔하며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소파에 쿠션이나 등받이가 원하는 대로 놓여 있지 않다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즉시 재배치를 한다.

**그렇게 집에 몰입 빈티지 가구와 예술 작품도 꼼꼼한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다. 최근에 구입한 건 무엇인가?**  
 수년 동안 나는 빈티지 수집가로 살았다. 특히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의 다양한 작품을 수집했다. 나와 내 공간,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와의 사이에 연결 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울림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 에어 데 라누스(Eyre de Lanux)가 1929년 제작한 일체로 한 쌍을 구입했다. 마호가니에 짐을 찌서 만든 의자가 지난 시대 초월적이고 순수한 매력에 놀랐다. 소더비에서 구입한 것으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뿌듯하다. 그녀는 1920년대 파리에 머물며 가구와 리그를 디자인했는데, 급진적이며 아름답다. 물론 그녀의 인생 이야기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달라.**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공간이다. 건축가의 시선에서 구조 내에서의 안정된 비율과 조화, 빛의 요소까지도 모두 균형 잡혀야 한다. 또 바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는 차분하고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며 재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나와 내 반려견이 함께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